

강임준 군산시장, 농업재해 피해보상 '총력'

2021년산 벼 수매 현장 방문·병해충 피해 농가 격려 및 보상 노력



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2021년산 벼 수매가 한창인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.(사진)

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이삭도열병 등

벼 벼해충 발생으로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으며, 생산량도 평년대비 5~10%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.

군산은 1일부터 15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서 벼 벼해충 피해 발생현황을 조사해 접수된 2,771농가 3,824.7㏊(전체면적 대비 33.6%)

조사결과를 전북도에 제출했다.

이날 회현농협RPC는 사전에 계약재배를 한 631농가에서 생산한 신동진쌀 1만3,585톤의 벼를 매입할 계획이며 17일까지 매입한 실적은 5,500톤으로 전체 계약물량 대비 40.5%를 매입완료 했다.

김기동 조합장은 “올해 잦은 비로 벼 생육이 불량해 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등숙 기간이 짧아 수확량이 평년 대비 상당량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”며 “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해 줘 감사드린다”고 전했다.

강 시장은 “군산 전역에서 이삭도열병 등 대규모 벼 병해충이 발생해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담당부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인정 등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/군산=허정찬 기자

전북타임스

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006면 지역

군산시장, 21년산 벼 수매 현장 방문·격려

강임준 군산시장이 2021년산 벼 수매가 한창인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.

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이삭도열병 등

벼 벼해충 발생으로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으며, 생산량도 평년대비 5~10%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.

군산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서 벼 벼해충 피해 발생현황을 조사해 접수된 2,771농가 3,824.7㏊(전체면적 대비 33.6%) 조사

결과를 전라북도에 제출했다.

이날 회현농협RPC는 사전에 계약재배를 한 631농가에서 생산한 신동진쌀 13,585톤의 벼를 매입할 계획이며, 지난 17일까지 매입한 실적은 5,500톤으로 전체 계약물량 대비 40.5%를 매입 완료 했다.

/군산=지송길 기자

전민일보

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008면 지역

강임준 군산시장, 벼 병해충 발생 피해 농민 의견 청취

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벼 수매가 한창인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시에 따르면 올해는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 발생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으며, 생산량도 평년대비 5~10%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.

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서 벼 병해충 피해 발생현황을 조사해 접수된 2,771농가 3,825㏊(전체면적 대비 33.6%) 조사결과를 전북도에 제출했다.

강임준 시장은 “군산 전역에서 이삭도열병 등 대규모 벼 병해충이 발생해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담당부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인정 등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



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벼 수매가 한창인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력해 달라”고 말했다.

한편, 전북도는 군산, 김제와 부안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등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피해 벼 수매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.

군산=김종준기자